

만남

2023년 8월
통권 222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베드로와 예수>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8. 10.)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앙 나눔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	4
영적 상담	-----	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	-----	9
영혼의 트랙	-----	12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
축복합니다

♥ 사랑과 감사로 산다! (최영숙 데레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만 남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린 듯
받은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갖게 하고
베푼 사랑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갖게 하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입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선 내가 건강해야만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면서
복음말씀 따라 봉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 인줄로만 알았었는데
주님의 뜻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고집하며
사랑으로 빚어 만들어주신 “나”라는 존재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었네!

내 몸인들 내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죽어서 살고
내 맘인들 내 생각대로 따르지 못해 바보가 되며
내 삶인들 내 소망대로 이루지 못해 한숨만 쉬고
내 믿음도 내 신앙대로 지키지 못해 기도만 하네!

주님을 알아 뵈지 못할 땐 동반자로 함께하시고
아파 고통으로 신음할 땐 위로자로 돌봐주시며
바쁜 일상에서 방황할 땐 선구자로 인도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져있을 땐 구원자로 건져주시네!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들도 주 찬미 찬양하는데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들이 곧 은총이고 축복이라
불러주신 하늘자녀 오늘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네!



연중 제 19 주일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23)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0장 “믿음으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 주님, 저희가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고, 거룩한 곳을 찾아 다니니까?
-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준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당신은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주님의 능력 만을 보고 열광하는 신앙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쩌면 당신께 열광하는 군중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일깨워주시는 듯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겠지요. 내 마음에 들면 믿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뒤에야/진계유

고요히 안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했음을 알았네
문을 달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림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0장 “믿음으로”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질문

Q. 요즘 자기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미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해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그런 사람들의 증상을 말하기 전에 우선 감정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감정’ 그러면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당신 나한테 감정 있어?’ 등의 표현이 그로 인해 생긴 말들이지요. 그러나 감정은 ‘마음의 근육’입니다. 즉, 몸의 근육처럼 다 잘 사용해야 하지요.

그런데 감정 중에서 유독 분노란 감정만 발달시키면 소위 ‘분노중독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간헐성 폭발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의 조절 실패가 발작적인 형태로 반복해 나타나는 장애가 간헐성 폭발장애입니다.

요즈음 보도된 바 있는 사례로는 밧줄에 매달려 작업하는 사람의 밧줄을 끊어 떨어져 죽게 한 사람,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컴퓨터 수리공을 살해한 사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한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상을 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정신의학에서 간헐성 폭발장애인들은 남성이 많은 편인데, 아동기에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어린 시절 구타를 당한 경험이 많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집에서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 소위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듣는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발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공통 증상 중 하나는 망상 중에서도 특히 ‘피해망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 보거나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발작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말조차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립성 폭발장애인(isolated explosive disorder)’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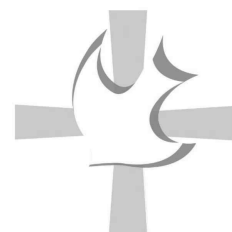
이 증상은 단 한 번 외부를 향해 난폭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파국적 결과(catastrophic impact)’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총을 쏘고 자신도 자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동네에 가서 방화하거나 차에 흠집을 내는 행위들도 이런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가정환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개 좋지 않은 환경이 대부분인지라 대체 수단으로 종교적 환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대로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종교가 수용하고 돌봐 줌으로써 심리적인 외상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이 든 어른도 모두 어린이가 됩니다 /
 밝게 웃다가도 슬프게 울고 좋다고 했다 가도 싫다고 투정이고 /
 변덕을 부려도 용서가 되니 반갑고 고맙고 기쁘대요 /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쁜 생각도 멀리 가고 죄를 짓지 않아서 좋대요 /
 세상에 엄마가 있는 이도 엄마가 없는 이도 엄마를 부르면서
 마음이 착하고 맑아지는 행복 어린이가 되는 행복’

목주를 들고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엄마가 존재하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성모님께 대한 기억이 심어진다면...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정되어 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시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직후에는 약 700~800톤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리를 통해 하루 약 14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64종 안에는 세슘-135(반감기 230만년), 플루토늄-239(반감기 2만 4천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64개의 핵종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답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조수육 29%, 가공식품 6.3%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에서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 안쪽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kg당 100벵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벵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방사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저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시중일관 핵발전소의 확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탱크에서 표본을 채집할 때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제외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나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일부 핵종만을 측정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고 투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 둔 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방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경우이기에 해양투기라 해야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상황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인류가 식품을 통한 내부 피폭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늘어만 가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투기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비축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1기당 10만^m³ 대용량 저수탱크를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하며 방사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 등과 섞어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 탱크에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이 대안입니다. 이미 미국 사바나강 핵시설에서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공해상으로 투기하는 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환경을 장기적으로 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일본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 국가들과 전 세계인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인류 재앙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으며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 농민회, 정의평화위원회 /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하늘땅물벗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농민사목위원회, 공동선실현사제연대,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부, 해양사목부, 생명사목부, 경찰교정사목부, 가톨릭환경연대, 한강하구평화센터 / 전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정생명환경위원회 /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가톨릭기후행동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 누구나 삶은 처음이다 (이현숙 아마따 수필가)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날줄, 분노와 슬픔이란 씨줄로 짜인 한 필의 피륙이다. 그 안에는 낙동강 삼각주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단언컨대,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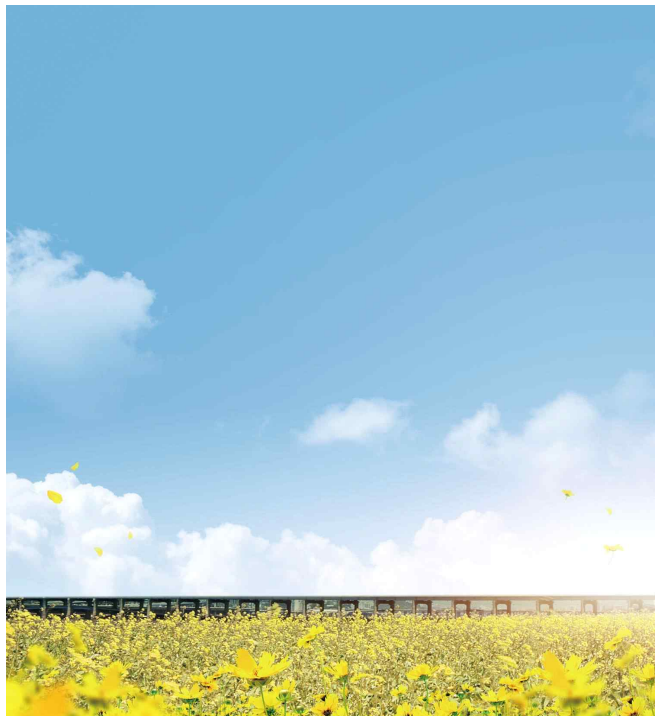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친 세파에 부대끼며 각자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초짜 인생들이다. 그런데 필생의 과업인 양 생활 전선에 오롯이 매달리느라 그 귀한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높아지듯 물질적 손해를 감수할 때 나를 위한 치유의 시간도 생겨난다. 사람 마음이 또한 간사하다. 예를 들어 고생고생해서 소원하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도 기쁨은 잠깐이다. 목표를 이룬 순간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앉고 싶은 새로운 꿈이 싹튼 때문이다.

길어봤자 백 년 인생이건만 시도 때도 없이 출렁이는 욕망과 고뇌로 말미암아 마치 천년의 근심을 끌어안은 듯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싶다. 남의 마음도 아닌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갈팡질팡 아근바근하다니 내남없이 어찌 이리 미욱한가. 하루치 고민은 양념치킨과 프라이드치킨, 짬뽕과 자장면, ‘짜떡’과 ‘부떡’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족하다. 인생 소풍길이 그 이상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 나면 스페어타이어라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스페어도 없고 어느 누가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한번뿐인 삶을 후회 없이 살아 보겠노라 욕망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꿀맛을 한 번 본 벌은 꿀단지 속으로 점점 파고들다가 결국 꿀에 빠져 죽는다. 인간이라고 어리석은 벌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여하튼 심신이 건잡을 수 없이 피폐해진 뒤에야 비로소 질주를 멈춘다. 맹목적이리만큼 치열했던 지난날의 회한이 과도처럼 밀려드는 순간이기도 하다. 만시지탄이나마 교훈도 얻고 영육 간의 건강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같은 해피 엔딩이 흔한 편은 아니다.

인생 비법이 무어나 묻지를 마라. 마음이 편하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사실 열 번 울고 한 번 웃는 게 인생이다. 아픈 기억은 잊고 웃던 일만 기억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지나간 아픔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한다면 온전한 성공이다. 한편, 극한 환경에서 자란 꽃이 향기가 짙듯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다르다. 길을 걸다가 발끝에 채인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에게 시련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으면 가난을 겁낼 이유가 없다.

그나저나 세상살이 초보로서 실수가 잦은 것은 그렇다 치자. 뒷감당을 으레 주님께 떠넘기는 건 무슨 경우인가. 애먼 주님께 민원 청구는 자제하고 눈앞의 현상에 휘둘리지 않을 통찰력, 중요한 일과 시답지 않은 일을 가려낼 분별력을 주시길 기다려 보자.



♥ 우리 시대의 성인들 -

프란치스코 마르토(1908~1919) · 히야친타 마르토(1910~1920), 축일 2월 20일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 시기였다.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러시아는 사회주의혁명을 거치며 무신론의 제국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 포르투갈의 조용한 시골 마을 파티마에 사는 세 목동에게 성모님이 찾아왔다. 마누엘 페트로 마르토와 올림피아 부부의 9살 아들 프란치스코 마르토(St. Francisco Marto, 1908~1919), 7살 딸 히야친타 마르토(St. Jacinta Marto, 1910~1920), 그리고 이들의 사촌 10살 루치아 도스 산토스였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어린 성인들의 삶을 살펴본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라

1917년 5월 13일. 뜨겁고 강렬한 빛이 즐겁게 놀고 있는 세 목동을 비췄다. 빛 한가운데 성모님이 목주를 들고 온몸을 감싸는 찬란한 흰색 망토를 걸치고 나타났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해다오. 하느님의 은총이 너희가 받을 고통을 위로할 것이다.”

성모님은 10월까지 매달 13일, 모두 여섯 차례 발현해 세 목동에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보속을 거듭 부탁했다. 특히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목주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당부했다. 성모님 발현 1년 전인 1916년에는 천사가 세 목동 앞에 세 차례 나타나 이들의 길을 준비했다. 천사는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고 “인류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하느님께 위로를 드리라”고 했다.

성모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전했다. 지옥의 실재,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예언, 교황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오 11세 교황 때 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티 없는 나의 성심이 승리하고 교황이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교황의 고난이란, 흰옷을 입은 주교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피격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모님은 자신의 발현을 모든 이가 믿도록 10월에 큰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세 목동에게 약속했다.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자 10월 13일 7만여 명 군중이 파티마의 코바 다 이리아로 몰려들었다. 약속대로 발현한 성모님은 “나를 기념해 성당을 짓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죄를 뉘우치라”고 말했다. 성모님께서 말을 마치고 태양을 향해 손을 뻗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번갯불처럼 빠르게 땅으로 돌진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다. ‘태양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많은 사람이 태양의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다고 전해진다. 1930년 포르투갈 가톨릭교회는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 5월 13일을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로 제정했다. 성모님이 발현한 장소에는 파티마대성당을 세웠다.

어린 성인들의 기도와 고행의 삶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린 목격자들을 불신하고 조롱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행정관들은 마리아가 일러준 비밀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실토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산 채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했지만 어린이들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또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하나로 여기며 담대한 태도로 계속 묵주기도만 바칠 뿐이었다.

남매는 성모님의 당부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찾아 나섰다. 췌기풀로 다리를 문지르고 굵고 거친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녔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또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속으로 여기며 참아냈다.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내어주며 단식과 희생을 바쳤다. 식욕을 억제하려 도토리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먹고 9일 혹은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

장기간 단식은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행이었다. 두 성인은 어린이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친 것이다. 이들은 고행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되풀이했다. “제가 바치는 이 선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죄인들을 대신해 바치는 보속입니다.”

조용한 성품을 가진 프란치스코는 기도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 틈만 나면 묵주기도를 했다. 특히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바치는 묵주기도를 좋아했다. 히야친타는 자신의 고통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집중했다. “히야친타는 지옥의 환시를 본 후부터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이 희생하며 보속하겠다는 열망에 더 강하게 사로잡혔다”고 루치아 수녀는 회고했다.

평화를 위한 헌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6월 13일 발현에서 성모님은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프란치스코는 폐렴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선종했다. 프란치스코는 성모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고통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했다. 프란치스코가 숨진 다음 해, 같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히야친타도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리기 위해 고통을 참아받겠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성인들에게 두려웠던 일은 단 한 가지. 이들이 열렬히 사랑했던 ‘숨어 계신 예수님’(성체)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했다. 이들은 각각 10살, 9살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세 목동이 성모님을 만난 지 꼭 100년이 된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발현지에서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남매는 순교하지 않고 성인 반열에 오른 최연소 성인이다. 교황은 시성식에서 “두 분은 성모님의 당부를 따라 죽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했다”며 “하느님과 성모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성인들의 삶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다. 포르투갈 가톨릭교회는 2005년 97세를 일기로 선종한 루치아 수녀의 시복도 추진 중이다.

파티마에 발현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부본부장 신동규 신부(다미안 마리아·대사제 예수의 사업)는 “성인들은 수도자나 신학자도 아니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단순하고 소박한 어린이였다”며 “성모님이 이 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평화를 위한 기도와 희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 소명임을 일깨우려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성인은 어린이의 단순한 믿음으로 성모님의 말을 따르고, 하느님을 위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냈다. 이들의 영웅적 삶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자기 봉헌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파티마 세 목동의 사진.
왼쪽부터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
CNS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 5월 13일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히야친타 마르토
시성식을 앞두고
파티마대성당 내
히야친타의 무덤을
찾아가 기도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디아	손 수 민	18일	헬레나	현 영 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이 미 용
		김 치 수			백(이)영자
	도미니카	배 성 우	23일	로사 필립	윤 혜 진
10일	라우렌시오	심(김)선옥			최 종 금
					해준
11일	수산나	우 동 천	24일	바르톨로메오	Heifler
		노 정 자			남궁춘배
		서 수 진			
15일	마리아	정 마리아	27일	모니카	손 수 희
		김 춘 옥			윤 예 진
18일	클라우디아	김(이)영희			이 석 우
		이 지 연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라라 헬레나	전영웅(H)
10일	테레사	고희지(B)			박선자(H) 설윤자(O)
11일	수산나 알레나	강민정(B) 배 알레나(B)	22일	셀리나	김신자(H) 김세린(H)
			23일	로사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15일	마리 스텔라 스텔라 마리 스텔라	정은찬(H) 부지우(O) 강주희(H) 김세담(H)	27일	모니카	임소영(O)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 8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6일	72	219	162	72
13일	451	332	334	68
15일	259	254	167	276
20일	480	213	155	4
27일	34	215	151	77

❖ 8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커피 봉사
6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매자(베로니카)	허채열 크리스티안 허영란 엘리사벳	김한솔나 (리드비나)	요셉마리아회
13일	요셉마리아회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황혜인 (율리아)	1구역
15일	사목회	사목회	사목회	-
23일	비르지타회	청년회	황혜인 (율리아)	2구역
30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스) 허영자(가밀라)	신유경 (율리아)	3구역

♥ 7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 수잔나, 강신행, 강순행, 박춘실

✿ 공동체 계좌 입금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손수희

✿ 교구 계좌 입금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김영복, 남궁춘배, 이영원, 허채열, 현영애, 최성자, 배성우, 김진호,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최화영, 육종인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4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9.880,15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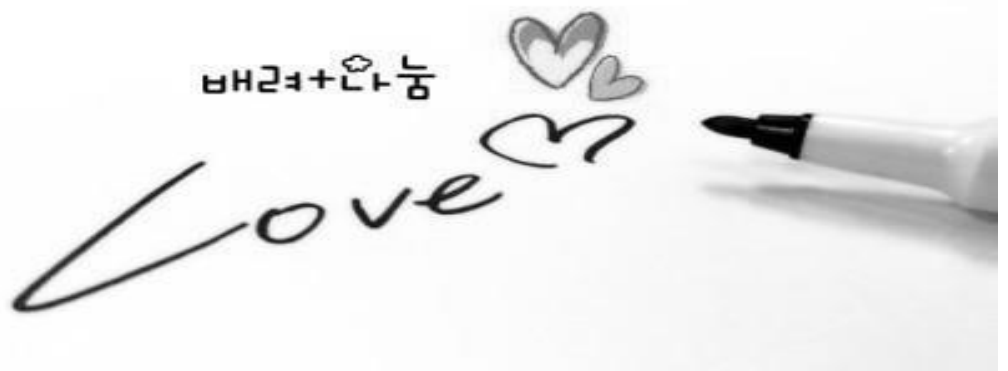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 15일(화)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19시에 만남성당 1층 강당에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며, 민족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 8월 8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3. 8월 23일(목) 11시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8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2. 9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9월 2일 브레멘, 9월 9일 오스나브뤼크, 9월 23일 노르웨이,
9월 30일 하노버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8월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최영철 신부
2	수			
3	목			故 장병화(요셉) 주교 33주기 故 박주선(안토니오) 신부 28주기
4	금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남영철, 최종태 장신영 신부 금육
5	토			
6	일	연중 제18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7	월			
8	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꾸리아	김화석, 이중기, 김정훈 신부
9	수			
10	목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이정림 신부 故 이태식(하비에르) 부제 54주기
11	금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2구역 소공동체 모임	금육
12	토			
13	일	연중 제19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14	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15	화	성모 승천 대축일	만남 1층 강당, 19시 미사	광복절
16	수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김태호 신부
17	목			
18	금			금육
19	토			
20	일	연중 제20주일	요셉마리아회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김효 신부
21	월	성 비오10세 교황 기념일		김순곤, 노종래 신부
22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3	수		연령회 월례회	
24	목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이종창, 유봉호 신부
25	금			남경철, 채동호 신부 금육
26	토			
27	일	연중 제21주일	사목회	
28	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이창섭, 박진우, 김동영, 김동윤 신부
29	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30	수			
31	목			장성근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8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